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초대교회사

1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 예기치 못한 선출
 - 감독 아욱센티우스의 죽음으로 인해 깨진 평화
 - --- 아리우스파
 - 새 감독 선출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폭동)
 - -- 밀란의 총독(암브로시우스), 중재자에서 감독으로
 - 자격에서 임명까지 8일
 - -- 세례, 서품

2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암브로시우스의 신학
 - -- 교리의 기초: 심플리키아누스의 교육
 - -- 자질: 헬라어, 법률, 수사학 능통
 - -- 문헌적 업적: 바실의 논문(성령에 관하여) 대중화

〈성직자의 의무〉

-- 신학적 업적: 삼위일체 신학의 발달에 기여

성육신의 중교성

-- 설교가: 사변적 용어가 아닌 목회적 용어로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암브로시우스의 실천신학
 - -- 고트족에게 유린당한 포로를

교회 소유 온금 그릇과 장식품을 녹여 팔아 기금 마련.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

사도

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세상에 내보낸 하나님은 또한 황금 없이 교회들을 모으셨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금그릇들보다는 살아있는 그릇들을 차지하는 편이 낫다."

-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의 만남
 - --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로 인해 개종, 세례

4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감독과 왕좌

- 암브로시우스의 정치/ 외교력
 - -- 반란자 막시무스의 위협으로부터 중제
 - -- > 황후 저스티나(아리우스파)와 암브로시우스의

알력

- -- > 암브로시우스의 교권 수호
- -- 막시무스의 침입 ←- 테오도시우스(동방)의 개입 (니케아 파)

_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암브로시우스의 공과
 - -- '성유물' (유골) 사건
 - -- 칼리니쿰 사태: '유대교 회당 방화'

-- 암브로시우스의 처벌 반대 기독교 제국에서 종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선례

- -- 데살로니카 폭동: 황제의 함정, 학살(7천)
 - -- 암브로시우스의 처벌 반대
- ===→ 결과: 권력(황제)과 교권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존 크리스소스톰

- 콘스탄티노플의 존
 - -- 응변력: '황금의 입'

--- > 전 생애의 언어적 표현

---- > 악의 세력에 대항한 전장

----- > 유배와 죽음의 길

- 친 수도(사)
 - -- 법률가, 수사학자 리바니우스 사사
 - -- 20세에 세례 3년 교육 절차
 - --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7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수도자에서 설교자로
 - -- 6년 은둔 끝에 집사 -- > 장로 -- > 감독
 - -- 설교로 명성
 - -- 397년 콘스탄티노플 감독

----- 유트로피우스에 의한 캐스팅

- -- 콘스탄티노플의 상황
 - --- 테우도시우스 황제 사후 두 아들

--- 유트로피우스 실권

- -- 설교 성향
 - --- 부유층 타격

8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수도자에서 설교자로
 - -- 6년 은둔 끝에 집사 -- > 장로 -- > 감독
 - -- 설교로 명성
 - -- 397년 콘스탄티노플 감독

----- 유트로피우스에 의한 캐스팅

- -- 콘스탄티노플의 상황
 - --- 테우도시우스 황제 사후 두 아들
 - --- 유트로피우스 실권
 - --- 타락한 성직자 ---- '영적 자매'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크리소스톰의 목회 성향 교회 재정 감사 부유층 저격 설교 가난한 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교회의 문을 열도록 성 소피아 교회의 강단에서 울려나오는 도전의 소리! 유트로피우스와의 관계 실권자일 때, '회개해야 할 신자 중의 하나'	
	-
실각했을 때, 교회로 피신하자	
'적의 목숨을 보호'	
유트로피우스 사후 황후 유독시아와의 갈등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침묵시켜야'	
10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크리소스톰의 유배	
항제 아르카디우스에 의해 유배	
> 시민들 소요	-
저항하지 않고 유배를 떠나는 크리소스톰	
지속되는 소요 사태	
> 다시 감독으로 귀환	
또 다시 추방	
> 서방 교회에서 정부를 통해 동방으로 압력	
> 사절단	
소요와 분열은 크리소스톱의 사후 31년 후 종식	
11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역사신학의 핵심	
선과 악의 구도와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	
> 그렇지만 지향점이 내재 됨.	
1) 왜 암브로시우스와 크리소스톰인가?	
2) 암브로시우스의 명과 암	_
3) 암브로시우스와 크리소스톰의 비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미래가 달랐다	
암브로시우스는 당대 가장 힘센 황제에 저항해 승리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 그 때부터.
 - --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제국의 약화에 반비례하여 점차 강성
 - --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의 제국은 그 후 1천 년을 지속했지만 교회에 대한 통제
- -- 테오도시우스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감독에게 무릎 꿇은 마지막 서방 황제가 아니었듯이, 존 크리소스룸은 동로마제국 황제에 의해 추방된 헬라어를 사용하는 마지막 감독이 아니었다.

•	